

## *Adam Bede*에 관하여\*

김영무

### 1

George Eliot의 처녀 장편소설 *Adam Bede*는 1799년에서 1807년 사이 8년간을 시대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는 영문학사에서 흔히 얘기하는 낭만주의 시대의 벽두에 해당하거나와, 작품의 무대가 되고 있는 Loamshire의 Hayslope는 산업화 이전의 전형적인 옛 영국 농촌마을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무엇보다도 철도부설과 근대화된 농기구의 도입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농촌의 삶을 탁월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흔히 전원시적인 혹은 목가적인 작품이라는 평도 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못지 않게 이 작품이 쓰여진 시기가 1859년이라는 사실도 우리의 주목에 값한다.

1832년 제 1차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산업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힘의 재분배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빅토리아 시대가 시작되는 데, 이 시기는 부와 권력이 주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귀족계급으로부터 대규모 공장소유자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농업위주의 사회에서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는 힘든 조정과 재편성의 시기가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겠다. 1840년대의 (Chartist Movement로 대표되는) 격렬한 노동운동으로 심화되었던 계급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산업혁명의 결실이 경제적 번영과 풍요로 나타난 것이 1850~60년대이다.<sup>1)</sup> 1851~67년의 시기를 흔히 영국의 빅토리아 전성기 (the period of high-Victorian England)라고 하는데, 격동의 40년대와 대변혁의 80년대 사이에 끼어있는 이 기간은 안정과 번영의 시대이다. 근면, 성실, 깊은 생각, 일, 진보 등등의 주요 개념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빅토리아 시대 중기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 못지 않게 계급간의 이해에 일종의 균형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최초의 산업국가로서 영국이 성취한 번영의 실질적인 열매는 주로 토지소유귀족들과 공장소유자본가들의 차지였으나 농민들과 노동자들에게도 번영의 뜻은 돌아갔다. 1846년 곡물법 (Corn Law)의 폐지로 농민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지게 되지만, 그렇다고 농민들의 처지가 당장 크게 나빠진 것도 아니었다.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인 명성과 국내적 안정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는 또한 영국적인 여러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사회구성원 사이에 두루 퍼져있었다. 이런 믿음은 1848년의 혁명적 격동기를 무사히 넘김으로써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체제와 제도의 급격한 변혁 보다는 타협과 협상과 양보를 통한 질서있는 점진적 변화의 균형이 중요시 된다.

물론 이런 식의 야심적인 일반화에는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실제로 번영과 안정의 혜택

\* 이 논문은 1989년 학술연구조성비(자유공모과제) 지급에 의해 쓰여진 것임.

1) Asa Briggs, *Victorian People: A Reassessment of Persons and Themes 1851~67*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4), 제 1장과 2장 참조.

이 각계각층에 골고루 퍼지지 못해서 많은 불만 세력이 있었고, 타협과 협상에 의한 균형이라는 것도 일부 영역에, 대체로 공적인 영역 보다는 사사로운 영역에 국한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해관계의 대립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던 1830~40년대와 1880년대에 비해 볼 때 1850~60년대는 분명히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토대 위에서 의무 및 절제를 핵으로 하는 윤리관, 질서와 변화의 조화 또는 균형이 설득력있게 전파되던 시대였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Adam Bede*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빅토리아 시대 중기의 가치관과 사상적, 문화적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He’s of a rash, warm-hearted nature, like Esau, for whom I have always felt great pity,” said Dinah. “That meeting between the brothers, where Esau is so loving and generous, and Jacob so timid and distrustful, notwithstanding his sense of the Divine favour, has always touched me greatly. Truly, I have been tempted sometimes to say that Jacob was of a mean spirit. But that is our trial: we must learn to see the good in the midst of much that is unlovely.” (457)<sup>2)</sup>

이것은 신분상의 차이를 무시한 Hetty Sorrel과 Arthur Donnithorne 사이의 무모한 사랑이 비극적인 파국으로 결말이 나고 이 파국의 와중에서 생긴 여러가지 상처들이 일정한 치유의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Adam Bede와 Dinah Morris가 주고받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자신의 소작인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지주가 되는 것이 Arthur의 꿈이었다. 그러나 Hetty와의 사랑 사건 이후 일종의 자진 추방상태에서 군대생활을 하면서 그는 20대의 청춘임에도 다 늙어버린 느낌에 (You can’t think what an old fellow I feel.)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삶의 계획도 설계하지 않으며 오직 소모적인 노역에서만 생활의 의미를 찾는 날을 보낸다(I make no schemes now. I’m the best when I’ve a good day’s march or fighting before me). 결국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Arthur의 운명을 동정하면서 Dinah는 그에게서 창세기에 나오는 Esau의 삶을 연상하는 것이다(457). 사실 Jacob과 Esau의 이야기는 George Eliot의 처녀 장편소설인 *Adam Bede*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Esau와 Jacob의 이야기는<sup>3)</sup> 무슨 의미를 담은 이야기인가? 어느날 사냥에서 돌아오는 길에 쟁동이 동생 Jacob이 팔죽을 끊이는 것을 보고 형 Esau는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을 좀 먹자”고 말한다. 그러나 동생은 선뜻 죽을 내주는 대신 (Esau였다면 그랬을 것이다) 장자로서의 상속권을 자기에게 주어야 죽을 주겠다고 버틴다. 형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면서 동생이 시키는 대로 맹세하고 팔죽으로 배고픔을 채운다(아마 형은 동생이 내세운 조건을 장난쯤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형제 사이의 스스럼 없는 관계에서 마저 팔죽 한 그릇을 장자 상속권과 맞바꾸자고 했던 Jacob은 급기야는, 비록 어머니의 부추김에 의한 것이라는 해도,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다. 또한 형의 분노가 두려워 피신했다가 여러 해 뒤에 돌아와 형과 만날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동생을 반기는 형과는 달리 동생은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는다.

2) *Adam Bede*의 텍스트로는 Signet Classic판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intro. F.R. Leavis, 1961)을 사용하였고, 앞으로 본문에 나오는 페이지 참조는 모두 이 책에 의한다.

3) 창세기 25, 27, 33장 참조.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듯이 Esau는 Dinah의 말대로 “성급하고, 정이 많은 품성”의 사람이며 옛날의 동생의 비열한 행동을 불문에 부치는 “다정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에 비하여 Jacob은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신중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Esau는 충동적인 만큼 대범한데, Jacob은 Dinah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어딘가 “비열한” 구석 조차 있는 것 같다. 구약성서에서는 열정과 충동의 청년인 대범한 형이 아니라 신중하고 용의주도한 그래서 어딘가 비열한 동생이 하느님의 호의로 변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당혹스러운 이야기에 대해 Dinah는 “우리는 많은 불상사나운 것 가운데서 훌륭한 것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Dinah같은 종교적 심성의 사람이 보임직한 태도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세목이 있다. 형 Esau는 “날쌘 사냥꾼”으로 “들에 살고” 동생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으며” 아버지는 형을, 어머니는 동생을 더 사랑하였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신임과 상속권을 가진 맏아들, 어머니와 더불어 천막 안에 사는 차남, 이 두 형제의 관계란 다시 말해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이다. 더구나 형은 강자답게 사냥을 하고 동생은 죽이나 끌이는 즉 강자의 뒷 치닥거리나 하는 주변적인 존재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읽을 때 매우 난처한 이 형제간의 불화와 반목의 이야기는 민족 혹은 부족,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족과 에돔족의 기원과 발생에 관계되는 전승으로 이해되어 왔거니와, 이런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읽는 것일 것이다. Dinah가 Esau에 비유한 Arthur의 운명도 이런 관점에서 읽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즉 Arthur로 대표되는 강자들(귀족지주계층)과 이들의 풍요를 실질적으로 뒷바라지한 용의주도하고 부지런한 그러나 주변적인 Adam과 같은 약자들 사이의 관계의 변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역사적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작품 *Adam Bede*의 기본적인 구도인 것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 Adam이 1799년 6월 18일 오후 어느 목재소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 1807년 6월 무렵 작업장이 여덟 달린 목재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끝난다. Adam은 사회적 신분으로 보자면 하층장인계급인데, 작품의 끝 무렵에 가면 일종의 중소기업가 겸 귀족의 삼립관리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시켜 이야기하자면 주인공의 계급상승의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요 내용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Adam은 애초부터 하층계급의 동료장인들과는 다른 자질과 품성을 갖추고 있다. 그는 근면, 성실, 정직, 결약, 솔선수범 등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 일에 대한 자부심, 자립심이 특히 강하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과 덕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중산계급의 삶의 가치이기도 하다. Adam은 신분상으로는 하층민에 속해 있지만 그가 내면화하여 실천하는 가치는 중산계급의 그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종적으로 그가 중산계층으로 계급상승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할만하다.

Adam의 어머니 Elizabeth가 아들과 그녀 자신의 거리를 의식하면서 아들이 자신의 세계와는 다른 지체 높은 나으리들의 세계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이나,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를 잘난체한다고 간혹 못마땅해 하는 것이나, Arthur 및 Irwine목사 또 Poyser네 식구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Adam이 구현하고 있는 중산계급적인 덕목 때문이다.

He's an uncommon favourite wi' the gentry, Sir. Captain Donnithorne and Parson Irwine meks a fine fuss wi' him. But he's a little lifted up an' peppery-like. (28)

결국 자수성가하여 뜻을 세우는 Adam의 이야기는 전통적인 기존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으면서 즉 사회적, 신분적 질서와 안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절진적으로,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온건한 변화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1832년의 제1차 선거법 개정 이후 좀더 확대된 선거법으로의 개정을 위한 법령이 처음으로 하원에 제출된 것이 1859년이었는데, 비록 이 법안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1867년까지 기다려야 제2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은 새로 대두하는 봇가 진자들의 요구에 일정한 타협의 제스처를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소설은 이러한 시대 상황에 제시된 매우 간접적인 한 대응적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 2

Hetty와 Adam과 Arthur의 애정 삼각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일종의 도덕적 테마가 이야기 전개의 기동이 되고 있지만, 이 소설을 잉태한 창조적 상상력의 집중적인 공감과 조명을 받는 것은 Poyser네의 삶이다. Poyser네는 부유한 소작농(tenant farmer)이다. 그들은 대대로 중농에 속해 있으며 Squire Donnithorne으로 대표되는 지주계층(신사계층)과 하층 농업노동자계급 사이에 위치한 중간계층이다. tenant farmer는 신사계층과 노동자계층 사이의 중간계급이라는 점에서는 자유농민(yeoman)과 차지가 흡사하다. 다만 중세적인 사회관계에서 자유농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자본 및 현금이 경제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세계 즉 자본주의적인 영향이 영국농촌에까지 미치게 된 사회관계에서는 tenant farmer가 훨씬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Adam Bede*에서 tenant farmer인 Poyser네는 지주인 Squire Donnithorne에게 소작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또 그들은 그들대로 일꾼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일을 시키는 입장이다. Martin Poyser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자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Poyser네의 삶의 본거지인 Hall Farm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배경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sup>4)</sup>

Evidently the gate is never opened; for the long grass and the great hemlocks grow close against it, and if it were opened, it is so rusty that the force necessary to turn it on its hinges would be likely to pull down the square stone-built pillars to the detriment of the two stone lionesses which grin with doubtful carnivorous affability above a coat of arms surmounting each of the pillars...

It is a very fine old place, of red brick, softened by a pale powdery lichen....But the windows are patched with wooden panes, and the door, I think, is like the gate—it is never opened. How it would groan and grate against the stone floor if it were! For it is a solid, heavy, handsome door, and must once have been in the habit of shutting with a sonorous bang behind a liveried lackey, who had just seen his master and mistress off the grounds in a carriage and pair.

But at present one might fancy the house in the early stage of a chancery suit, and that the fruit from that grand double row of walnut-trees on the right hand of the enclosure would fall and rot among the grass, if it were not that we heard the booming bark of dogs echoing from

4) 이 대목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Szanto Alison Andrew, *Between Liberation and Democracy* (Unpublished Dissertation, 1973), pp.54-55의 논의 참조.

great buildings at the back. And now the half-weaned calves that have been sheltering themselves in a gorse-built hovel against the left-hand wall come out and set up a silly answer to that terrible bark, doubtless supposing that it has reference to buckets of milk. (78)

한때는 쌍두사룬마차가 드나드는 고급상류사회의 삶의 현장이었던 시골귀족저택(Hall)이 지금은 개짖는 소리 요란하고 이에 젖소의 울음이 화답하는 농가(Hall Farm)으로 변한 것이다. 작가 자신이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The history of the house is plain now. It was once the residence of a country squire, whose family, probably dwindling down to mere spinsterhood, got merged in the more territorial name of Donnithorne. It was once the Hall; it is now the Hall Farm. Like the life in some coast-town that was once a watering-place, and is now a port, where the genteel streets are silent and grass-grown, and the doors and warehouses busy and resonant, the life at the Hall has changed its focus, and no longer radiates from the parlour, but from the kitchen and farmyard. (79)

귀족들이 한가롭게 여가를 즐기던 해안의 온천 휴양지가 산업의 발달로 북적대는 항구 도시로 바뀌면서 도시 기능의 중심이 우아한 여관 거리에서 교역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창고로 바뀐다. 이와 마찬가지로 귀족의 저택이 농가로 변하면서 이 시골 중농의 농가에서도 과거처럼 응접실이 아니라 부엌과 마당이 생활의 중심이 된다. 지주계층의 영향력 감소와 중간계층의 영향력 증대의 결과 과거의 중심 세력의 필요에 맞추어 지어진 건물이 신홍계급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도록 용도의 중심이 이동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안 마을에서도 농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토지귀족계급의 세력은 약화되어 그들의 권위의 상징인 문장(coat of arms)은 녹이 쓰고 색이 바랬다. 막을 치고 소를 기르고 우유를 짜는 덜 세련된 새로운 계급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이다. 이 새 주인은 과거의 전통과 제도와 장식품들을 필요 없는 것이라며 없애버리지 않는다. 과거의 삶이 심각히 훼손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아간다. Squire Donnithorne이 사회적 신분으로 또 명목상으로는 이 마을의 지배세력이지만, 이 마을의 삶의 실질적인 주역은 Poyser네인 셈이다. Poyser네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력의 번영과 안녕은 과거의 제도를 슬기롭게 차용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생활의 중심이 응접실에서 부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무슨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서 Hall Farm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농촌 중산계층의 세력확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듯이 빅토리아 시대 중기의 노동계급도 기존사회체제의 혁명적인 변혁 없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점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우희적인 암시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소설에서 나중에 Adam이 Jonathan Burge의 목재소를 인수하여 일종의 중소기업가가 되는 것도 Jonathan이 나이가 들어 우수한 기술자인 Adam에게 자연스럽게 사업이 인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Hall Farm이 옛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문맥에서, Adam도 Burge의 목재소에 몇개의 작업장을 덧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Adam이 결혼하여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기존의 집에 방을 한두 칸 덧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 딴 살림을 차리거나 집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같이 떠오르는 세력인 중산계층을 대표하는 Poyser네와 Adam의 성공과 번영이 이

소설의 주요 사회적 문맥을 이룬다. Poyser네나 Adam이 Hayslope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정은 앞으로 더욱 좋아질 전망이 있거니와, (점정적이긴 하지만) Hayslope를 떠나게 되고 영향력을 현저히 잃게 되는 것은 지주계층의 다음 세대인 Donnithorne가의 상속자 Arthur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계급상승의 문제와 계급들의 역사적 운명에 관한 통찰이 엿보인다고 해서 역사의 진보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때 강자였다가 역사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계층을 상징하는 Esau의 처지에서 Arthur의 운명을 보면서 Dinah가 동정과 애처로운 심사를 토로했듯이, 이 작품 전체에 잔잔히 깔려있는 정서는 오히려 이상화된 향수라 할만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급진적인 변혁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균형잡힌 변화가 이 작품의 이념적 가치 지향인데, 이것은 작가 George Eliot가 자신 직접적인 목소리로 인간관과 예술관을 밝히고 있는 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Adam Bede*가 출판되고 5개월 쯤 지난 뒤인 1859년 7월 5일 Charles Bray에게 보낸 편지에서 George Eliot는 이렇게 말한다.

I have had heart-cutting experience that opinions are a poor cement between human souls; and the only effect I ardently long to produce by my writings, is that those who read them should be better able to *imagine* and to *feel* the pains and the joys of those who differ from themselves in everything but the broad fact of being struggling erring human creatures.<sup>5)</sup>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간은 제각기 다 다르지만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며 허우적거리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생각이다. *Middlemarch*에서도 내레이터는 “우리들 모두가 도덕적 어리석음 가운데 태어나며, 우리는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젖꼭지 같은 것이 세상이라고 여기고 있다”(We are all of us born in moral stupidity, taking the world as an udder to feed our supreme selves)<sup>6)</sup>고 말한다.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남들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보다 더 잘 “느끼고” 또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까닭도 바로 인간 존재의 이러한 공통적인 한계와 약점 때문이다. 서로가 약점 많은 인간임을 정직하게 깨달을 때 화해와 용서, 타협과 이해가 가능한 것이고, 이런 타협과 조정을 통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의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George Eliot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Middlemarch*에서 Mrs. Bulstrode가 이제까지 자신을 속여온 남편을 무언의 행동으로 용서하고 남편의 고통과 수치에 동참하는 유명한 장면에서 Mrs. Bulstrode는 위선적인 남편의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과거의 비행을 쳐벌과 단죄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그녀가 보기에 남편이 남을 속이고 또 해를 끼치고 한 것은, 그의 도덕적, 심리적 결함에서 생긴 것이며, 심리적·도덕적 결함은 신체적인 결함과 마찬가지로 치유되어야 하는 것이자 단죄되고 쳐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적 불구상태를 치유하는데는 공감과 동정과 따뜻한 정이 요구된다.<sup>7)</sup> Mrs. Bulstrode가 보여주는

5) Gordon S. Haight (ed.), *The George Eliot Letters* (New Haven: Yale UP, 1954~78), v.3, p.111.

6) Ed. and intro. Gordon S. Haight (Boston: Houghton, 1961), p.156.

7) Edwin J. Kenney, Jr., “George Eliot: Through the Looking Glass,” *Middlemarch* (New York: Norton, 1977), p.746.

행동이 George Eliot가 인간 상호간에서 기대하는 행동을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준 경우의 하나로 하겠거니와, *Adam Bede*에서는 Arthur에 대한 Irwine 목사의 태도가 이와 유사한 것이다.

George Eliot가 자신의 예술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했던 것의 일부도 동료인간을 공감과 애정과 이해로 대하는 독자의 청조에 있었다고 하겠는데, 이런 예술관의 자연스러운 귀결이 *Adam Bede* 제17장에 개진된 그녀 특유의 리얼리즘 이론이다. 세상과 사물과 사람이 우리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구미에 맞게 색칠을 하거나 원래 실태처럼 얹히고 쉬한 세상사(a mixed entangled affair, 175)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간단명료하게 처리하는 것은 진정한 예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의 사회는 영웅호걸이나 특이한 예외적 존재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두루 갖춘 범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범속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거짓없이 진실되게 그려내는 일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된다고 George Eliot는 말한다.

In this world there are so many of these common coarse people, who have no picturesque sentimental wretchedness! It is so needful we should remember their existence, else we may happen to leave them quite out of our religion and philosophy and frame lofty theories which only fit a world of extremes. Therefore, let Art always remind us of them; therefore let us always have men ready to give the loving pains of a life to the faithful representing of commonplace things. (177)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재현시켜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이 이를 결점 많은 동료인간들을 공감으로 너그롭게 감싸주도록 하는 것이 예술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라는 이런 생각은 George Eliot의 첫 소설이랄 수 있는 “The Sad Fortunes of the Rev. Amos Barton”(1856) 제 5장과 7장, 유명한 서평인 “The Natural History of German Life”(1859)에서도 *Adam Bede* 17장에서와 거의 같은 어조와 낱말로 되풀이 강조되고 있다.

We want to be taught to feel, not for the heroic artisan or the sentimental peasant, but for the peasant in all his coarse apathy, and the artisan in all his suspicious selfishness. (The Natural History, 271)<sup>8)</sup>

[I]t is so very large a majority of your fellow-countrymen that are of this insignificant stamp.... [T]hey have probably had no hairbreadth escapes or thrilling adventures; their brains are certainly not pregnant with genius, and their passions have not manifested themselves at all after the fashion of a volcano. They are simply men of complexions more or less muddy, whose conversation is more or less disjointed. (Amos Barton, 81)<sup>9)</sup>

우리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운명의 테두리 밖에 있는 동료인간들의 삶에 접촉할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예술이라 할 때, 범속한 농촌 민중의 삶을 거짓없이 그대로 그려내는 일은 더 없이 신성한 예술가의 작업이 되는 것이고(The Natural History, 271), 이런 신성한 작업이 열정적으로 추구된 것이 *Adam Bede*라 할 수 있다.

그런데 George Eliot가 전통적인 영국농촌의 삶의 사실적 재현을 그토록 강조한 가장 큰

8) Thomas Pinney (ed.), *Essays of George Eliot* (New York: Columbia UP, 1963).

9) *Scenes of Clerical Life*, ed. and intro. David Lodg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3).

이유 가운데 하나가 농민의 삶을 그리는 작가들이 그들 자신의 관념을 농민에게 투사하여 진실이 아닌 허위를 전해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까닭은 이런 과정에서 농민의 유품가는 특징이 말살되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George Eliot는 무엇을 농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여기는가? George Eliot가 생각하기에 범속한 농민들의 삶은 철두철미하게 전통과 관습의 지배를 받는다. 그녀는 Richl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적고 있다.

When our writers of village stories...transferred their own emotional life to the peasant, they obliterated what is precisely his most predominant characteristic, namely, that with him general custom holds the place of individual feeling (280).

이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름진 농토와 더불어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 사는 Loamshire의 Hayslope 마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과 그들 삶의 구체적인 실상, Elisabeth Bede 같은 시골 여인의 종교관, 성직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 대지주귀족인 Squire Donnithorne과 소작인들과의 관계, 소작인들과 농업노동자들 사이의 상호관계, 산업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웃의 척박한 Stonesshire 지방에 대한 Loamshire 사람들의 자기만족적인 반응, 사회적·경제적 제관계의 변화와 발전과 해체 등에 대한 농민들의 입장과 반응 등등이 세세하게 관찰되고 기록된다. George Eliot가 보기에도 교육을 받은 계층의 사람들은 개성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농민을 포함한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들의 생활관습과 언어습성을 지배하는 것은 대대로 전해오는 그들 무리 특유의 말투, 노래, 속담 등이며 그들은 이런 자신들의 관습을 신성시하며 거기에 매달린다. 그들은 이론적인 지식을 철저히 불신하며, 늘 자신들의 좁은 생활의 구체적인 디테일과 연관시켜 사물을 파악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농민들이 간혹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어떤 구체적인 불만사항의 시정과 철폐가 그들의 반란의 목적이지 사회체제 자체를 혁혁하여 그들 자신이 삶과 쟁기를 버리고 사회 질림의 주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이 소설이 Adam 및 Poyser네 등 일종의 새로운 농촌중산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 중대에 관련되는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이 소설이 공들여 전하려고 하는 농촌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전통과 관습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때 우리는 작품 *Adam Bede*의 궁극적인 이념적 지향의 성격을 좀 더 섬세하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이 쓰여진 1859년의 시대적 상황에서 George Eliot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어째서 농민을 비롯한 범속한 민중이 전통과 관습 등 과거와의 유대관계를 어느 무엇보다도 신성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는가? 앞서 논의한 대로 1850~60년대는 상대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구가한 시대이지만, 1832년 제 1차 선거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이래 1850년대에 들어 1852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물리치고 위그당의 Lord Aberdeen이 Peel의 추종자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잡으면서 자유무역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공직자의 공개경쟁시험제도(1853) 등이 도입된다. 그러나 크리미아 전쟁에서 보여준 무능으로 Aberdeen 정권이 물러나고 1857년 총선에서 승리한 Palmerston이 등장하여 1859년 선거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나 통과되지는 않는다.<sup>10)</sup>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상황에 알맞는 힘과 부의 재분배를

10) H.C.G. Matthew, "Government and Politics 1846~1901," *The Cambridge Historical Encyclopedia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Cambridge: Cambridge UP, 1985), ed. Christopher Haigh, pp.255~260 참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George Eliot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이 민중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그 과정의 부작용이 오히려 삶을 폐활시킬 수 있음을 일깨우고 싶었던 것이다. 즉 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징을 무시하고 순전히 두뇌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에서 추구되는 개혁의 불모성을 경계하는 것이 George Eliot의 기본 입장이라 할만하다. Riehl에 대한 다음과 같은 George Eliot의 이해와 평가는 그녀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되어도 무방할 것 같다.

After the notable failure of revolutionary attempts conduc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abstract democratic and socialistic theories, after the practical demonstration of the evils resulting from a bureaucratic system which governs by an undiscriminating, dead mechanism, Riehl wishes to urge on the consideration of his countrymen, a social policy founded on the special study of people as they are—on a natural history of the various social ranks. He thinks it wise to pause a little from theorizing, and see what is the material actually present for theory to work upon. (The Natural History, 287).

우리는 여기서 제17장의 리얼리즘 논의가 Irwine 목사와 같은 인물을 응호하는 문맥에서 쓰여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Irwine 목사는 일견 전통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수구적인 인물로 보인다. 그는 괴팍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할 뿐아니라 시집못간 두 누이를 위해 그 자신의 결혼마저 포기한 어떻게 보면 가정적 유대관계의 틀 속에 갇혀있는 신사이다. 그는 개혁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런 점은 그가 목사로서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가령 그는 세례에 관한 교리보다는 영세식이라는 예식 혹은 관습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농민들이 종교를 통해 무엇을 얻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목사의 설교를 잘 알아듣는다거나 예배용 기도서를 이성적으로 잘 이해해서라기 보다는 그들에 선조들이 물려있는 교회에 예배보러 오는 습성 자체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Mrs. Poyser의 인물평은 언제나 생생하고 정곡을 찌르는 바가 있는데, 개혁지향적인 Ryde 목사와 비교해서 Irwine 목사의 특질을 지적하는 그녀의 말은 과연 정확한 평가라 하겠다.

Mr. Irwine was like a good meal o' victual, you were the better for him without thinking on it, and Mr. Ryde was like a dose o' physic, he gripped you and worried you, and after all he left you much the same. (155-56)

종교개혁의 교리에 정통하며, 신자들을 집으로 찾아 방문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들의 잘못을 심하게 꾸짖기도 하는 Ryde 목사 같은 사람은 크리스마스 때 성가대가 캐롤을 부르며 집집이 다니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그 까닭은 이런 관행이 음주와 고성방가를 권장하고 신성해야 할 성탄절을 천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자들에게 많은 종교지식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농민의 기본적인 속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관념에 따라 개혁을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한다. 이에 비하여 Irwine 목사는 종교문제의 권위자로서의 체통을 지키면서도 또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신자들 개개인의 현실과 Hayslope 마을 공동체의 요구에 유연하고 동정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때 George Eliot가 리얼리즘에 관한 논의를 펼치면서 옹호하고 있는 Irwine 목사는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반(反)개혁 세력이라기 보다는, 진정한 변화는 나무에서 열매가 무르익어 떨어질 때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진적 균원적 개혁론자라고 볼 수 있다. 요구되는 것은 숙성의 과정을 촉진하여 씨앗이 완전히 여물도록 돋는 일이지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성급히 따내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열매 속에서 씨가 제대로 여물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원뿌리와는 다른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변화와 발전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The Natural History*, 288). 이런 입장은 개혁주의자의 것이 아니고 크게 보아 보수적인 자세이지만, 시대착오적인 수구적 아집파는 분명 다른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Riehl에 대한 George Eliot의 평가를 빌려 Irwine 같은 사람들의, 더 나아가서는 *Adam Bede*라는 소설과 작가 자신의 이념적 지향의 뉴앙스를 섬세히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시대의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겠다는 태도, 시계 바늘을 앞으로 돌려놓았으니 해가 중천에 왔을 것이라는 자세, 아직 이른 새벽인데 시계 바늘만 돌려놓는다고 대낮은 아니라는 입장 등등은 그 차이가 구별되어 마땅하다.

Riehl's conservatism is not in the least tinged with the partisanship of a class, with a poetic fanaticism for the past, or with the prejudice of a mind incapable of discerning the grander evolution of things to which all social forms are but temporarily subservient... He is as far as possible from the folly of supposing that the sun will go backward on the dial, because we put the hands of our clock backward; he only contents against the opposite folly of decreeing that it shall be mid-day, while in fact the sun is only just touching the mountain-tops, and all along the valley men are stumbling in the twilight. (*The Natural History*, 298-99)

## 3

정확한 관찰과 뛰어난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진 전통적 영국 농촌사회의 생생한 재현이 *Adam Bede*의 가장 뛰어난 성취라면, Arthur의 형상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밀한 심리묘사와 거의 동물적으로 반성적 능력 없이 매우 좁은 자아의 밀실에 갇혀있는 Hetty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해와 투시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인상적이다. Arthur와 Hetty의 인물창조로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 George Eliot 소설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는 인간심리에 대한 뛰어난 분석과 묘사는 여러 각도에서 자상이 논의되었거나와, George Eliot에게 영국 최초의 본격적인 심리소설가라는 이름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 관련 주역들의 추방과 죽음으로 끝나는 이 비극적인 부분이 Hall Farm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사회의 생생한 재현 부분과 어떤 의미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 두 부분의 관계를 심각한 논의의 대상으로 문제삼고 있는 무게 있는 글로는 Charles Pallister의 “*Adam Bede and ‘the Story of the Past’*”(1980) 정도가 있을 뿐이다.<sup>11)</sup>

이 논문에 따르면, 전통적 영국 농촌에 대한 이상화된 전원시적 재현에 놓여졌던 것 같은 작품의 초점이 후반부에서 갑자기 Hetty와 Arthur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로 바뀌는데, 이러한 돌연한 천환의 의도는 독자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독자는 이 소설에 대한 이제까지의 기대와 반응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독자로

11) Anne Smith (ed.), *George Eliot: Centenary Essays and an Unpublished Fragment* (London: Vision, 1980), pp. 55-76 참조.

하여 금 전반부에서 틀린 짐작과 가정을 마음 편히 하게 하다가 통찰력 있는 눈으로 사건과 상황 전체를 다시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분명히 텍스트의 현실에 있어 있으나 알아채지 못했거나 무시해버렸던 것들까지를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독자는 상황과 사건과 인간 현실의 균원적 복잡성과 복합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전략이 *Adam Bede*가 현실과 역사를 깊이있게 드러내기 위해 기대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논의이거니와, 사실 이 작품은 숨겨진 혹은 일찌기 알아채지 못했던 사실이 어떻게 이야기 해석의 방법을 바꾸어 놓는가를 문제삼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Martin Poyser 같은 인물이,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Hetty 못지 않게 냉혹하고 모친 면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놀라게되는 것도 Hetty의 비극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유아 살해 유기죄로 Hetty가 감옥에 갇히자 그는 자신의 가문에 치욕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조카인 그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제 남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린 조카가 원망스러울 뿐, 그는 Hetty의 고통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다.

"I'm willing to pay any money as is wanted towards trying to bring her off," said Martin the younger when Mr. Irwine was gone, while the old grandfather was crying in the opposite chair, "but I'll not go nigh her, nor ever see her again, by my own will. She's made our bread bitter to us all for all our lives to come, an' we shall ne'er hold up our heads i' this parish nor i' any other." (394)

Martin Poyser의 이런 냉혹함에 대해 작가인 George Eliot는 가문의 명예라든가 개인적인 위신과 체통 따위를 지극히 중시하는, 다시 말해서 관습과 전통에 애착이 강한 사람일 수록 남의 고통에 냉담하고 냉혹하다고 지적한다(393-94). Hetty의 비극은 사회적 문맥에서 보면, 관습과 전통의 한계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행동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인데, 과연 관습과 전통에 대한 집착과는 가장 거리가 먼 Dinah 같은 인물만이 Hetty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Irwine 목사조차도 Hetty가 마음을 열고 위로를 구하기에는 관습적인 세계의 인물이다(She shrank up like a frightened animal when she saw me [Irvine]. 398).

Hetty의 비극과 관련하여 Adam의 태도가 주목할만한 것인데, 그도 처음에는 Hetty의 아픔에 일차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오히려 Arthur에 대한 강렬한 복수심이다. 그 뒤 Irwine 등과의 논쟁을 통해 복수심에 불타는 증오는 삶의 창조적 실천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깨닫고, 끝까지 Hetty 곁에 있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이다.

"I'll stand by her—I'll own her—for all she's been deceitful. They oughtn't to cast her off—her own flesh and blood. We hand folks over to God's mercy, and show none ourselves. I used to be hard sometimes: I'll never be hard again. I'll go." (408)

Adam의 이런 결심은 Martin Poyser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 되기도 하며, Adam이 다른 관습적인 인물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의 심성의 바탕에 깔린 중요한 특질 즉 비관습적인 자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작품 *Adam Bede*는 한편으로는 농민을 비롯한 일반 민중의 유품가는 특질

이 전통과 관습에 대한 철저한 집착임을 소상히 관찰하여 보여주는 영국 농촌의 뛰어난 풍속사요,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삶에 따르게 마련인 무지와 미신과 편협함의 반창조성에 대한 심도있는 비판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Dinah가 Esau의 이야기에서 Arthur의 운명을 보면서 했던 말을 뒤집어 “우리는 많은 훌륭한 것 가운데서 볼상사나운 것을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도 아울러 전하고 있는 것이다.